

靑少年의 自我正體感 發達과  
 家庭生活 및 學校生活 適應에 關한 研究\*  
 - 濟州市 高等學生을 대상으로 -

Relationship of Adolescent Ego-Identity  
 and Adaptability to Family and School Life

현희순\*\*  
 Hyun, Hee Soon  
 김양순\*\*\*  
 Kim, Yang So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ionships of adolescent ego-identity and adaptability to family and school life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761 questionnaires completed by 11th grade students in Cheju City comprised the data.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examined by Cronbach 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program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s showed that (1) adolescents living with their parents adapted better to family life than those who lived separately. Those who shared problems with others adapted to school life better than those who didn't. (2) The ego-identity of boys was higher than girls on seven variables. (3) Ego-identity was higher among those who shared their problems. Those living with parents were higher on "general ego-identity," "worth," "social adaptability", and "self-acceptance." Adolescents with higher ego-identity adapted better to family and school life. (4) Father's career was related to "general ego-identity," "values," "social acceptance," and "peculiarity." Higher family income was related to higher ego-identity. Mother's employment was related only to school life. (5) Father's education was related to adaptation both to family and school life.

\* 이 논문은 1998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I. 서론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중간적 위치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띠 뿐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의 현실에 순응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기를 형성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체적·생리적으로는 이미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이다. 또한 가정이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학교교육 역시 전인교육보다는 입시 위주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고 바르게 정립해 갈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할 발달과업 중에 “자아 정체감”이 있다. 이 용어는 Eriks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나는 누구인가?’, .....로서의 자기’를 수시로 선택하고 찾기 위하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Erikson, 1968).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garet(1985)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인데 즉 그것은 행동이나 사고 혹은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것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 인식은 나를 보는 타인의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첫째로는 인간성으로서 자신이 인간이라는 느낌. 둘째로는 성별로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느낌. 셋째로는 개체성으로서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넷째로는 계속성으로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Erikson(윤진·김인경 역, 198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출생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정체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청년기이며 이때 자신의 존재, 사회적인 역할, 자신의 목표와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의도와 힘 등을 의식하게 된다고 한다. 자아정체감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개인이 접촉하고 확대해 가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아정체감은 성장하면서 점차 세계적인 정체감(Universal Identity)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춘재(1995)는 Erikson의 8단계 중 자아정체감 형성시기인 5단계는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형성시기로서 아동들은 전 단계에서 기본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차례로 획득해 나가면서 미숙한 형태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상(self image)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5단계에 접어들면 자아정체감 정립의 문제가 의식적인 수준으로 부각된다. 한편 청소년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데 개인의 정체감에는 여러 가지 동일시가 포함된다. 여러 부분적인 동일시들을 개인의 고유한 전체성으로 통합해 나갈 때 비로소 일관된 자아정체감을 이룰 수 있다.

각각의 발달단계는 모두 발달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고 위기가 발생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들 각각의 위기는 모두 대립되는 인격형성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며 그 단계의 위기를 나타내는 상호 대립된 특성들이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가능하고 자아통합의 원만한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박아청, 1984)

김형태(1989)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가정의 물리적 조건이나 부모의 지위보다도 자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응집력, 가족상호간 인간관계의 질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학교생활 중에서도 '학교활동의 흥미와 태도', '학습습관' '친구 상호 간의 적응' 다른 요인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garet(1985)은 부모-자녀 관계는 자기 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서 자기 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특히 모친이 취업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들의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심계진(1985), 강미애(1991), 박은아(1993), 김중녀(1992), 김희경(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광수(1987)와 박완성(1990)의 연구에서는 총자아정체감 점수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변인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김인숙(1988)과 조원영(1990), 강미애(1991), 박은아(1993)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자아정체감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 적응보다는 학교생활 적응이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 보다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특히 교우집단을 통해서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사회화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정, 사회,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일차적 환경으로서 생활경험과 문화전달 및 습득과 인격형성의 장소인 동시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아수용 또는 자아거부의 태도를 결정짓는 장소이며 그들의 가치관·동기·태도 등의 행동경향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학습의 장소로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1989)

가정과 학교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가는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업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분석하고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차이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자기이해를 돕고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자아정체감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과는 어떠한 차이와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이 조사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개 학교 중 인문계 400명 실업계 4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본 조사는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에 걸쳐 800부를 배부하여 782부 회수되었고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762부가 실제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예비조사 후 몇 개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면서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재창((1981), 유명환(1989), 조원영(1990), 최양임(1994)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고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박승운(1989), 박은아(1993)가 이용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후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0이다. 가정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은 송인섭(1982)의 측정도구 중에서 가정생활에 관한 문항인 박은아(1993), 김영옥(199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91이다.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문항들은 김형태(1989), 박미연(1992), 김종녀(1992), 박은아(199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84이다.

### 3. 자료분석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써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문제들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III. 결과 및 논의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성별	남	375 (49.3)	가족 유형	부모동거가족	683 (89.8)
	여	386 (50.7)		· 편부모· 무부모가족	78 (10.2)
계		761(100)	계		761(100)
출생 순위	말 이	268 (35.2)	상담대상	친구· 선배	373 (49.0)
	중 간	248 (32.6)		부모	70 (9.2)
	막 내	220 (28.9)		형제· 자매	67 (8.8)
	독 자	25 (3.3)		교사	5 (0.7)
	계	761(100)		· 좀처럼 의논 안 함	246 (32.3)
계		761(100)	계		761(100)
부의 연령	45세 이하	297 (39.0)	모의 연령	45세 이하	476 (62.5)
	46~50세	270 (35.5)		46~50세	209 (27.5)
	51세 이상	194 (25.5)		51세 이상	76 (10.0)
계		761 (100)	계		761(100)
부의 학력	국졸 이하	75 (10.1)	모의 학력	국졸 이하	160 (21.3)
	중졸	145 (19.4)		중졸	263 (35.0)
	고졸	353 (47.3)		고졸	284 (37.8)
	전문대졸 이상	173 (23.2)		전문대졸 이상	45 (6.0)
계		746(100)	계		752(100)
부의 직업	전문· 기술직	70 (9.6)	모의 직업	전문· 기술직	39 (5.2)
	판매직	82 (11.2)		판매직	113 (15.0)
	생산· 단순노무직	183 (25.0)		생산· 단순노무직	27 (3.6)
	행정· 관리· 사무직	176 (24.1)		행정· 관리· 사무직	31 (4.1)
	서비스직	78 (10.7)		서비스직	148 (19.7)
	농· 어업	125 (17.1)		농· 어업	131 (17.4)
	무직	17 (2.3)		주 부	262 (34.9)
계		731(100)	계		751(100)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71 (48.8)	고민 내용	건강· 용모· 체격	106 (13.9)
	151~250만원	309 (40.7)		학업성적· 진학	457 (60.1)
	251만원 이상	80 (10.5)		이성· 친구관계	96 (12.6)
계	760(100)	성격		43 (5.7)	
학생의 종교	유	408 (53.6)		가정문제	59 (7.8)
	무	353 (46.4)		계	761(100)
계		761(100)	계		761(100)

<표 2>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 무, 상담 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M	SD	t	M	SD	t	
성 별	남	4.06	.89	.04	3.79	.79	2.06*
	여	4.05	.91		3.68	.77	
가 족 유 형	부모동거가족	4.11	.89	4.96***	3.75	.78	1.54
	편부모· 무부모 가족	3.59	.83		3.61	.78	
종 교	유	4.08	.91	.93	3.71	.80	-0.79
	무	4.02	.88		3.76	.76	
상 담 여 부	한다	4.13	.88	3.20**	3.82	.77	4.47***
	안 한다	3.91	.90		3.55	.78	

\* p<.05    \*\* p<.01    \*\*\* p<.001

<표 3>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M	F	D	M	F	D	
출 생 순 위	만 이	4.12	.79		3.84	2.28		
	중 간	4.04			3.68			
	박 내	4.02			3.68			
	독 자	3.92			3.64			
상 담 대 상	친구·선배	4.01	18.64***	b	3.80	1.50		
	부모	4.68			a			3.97
	형제·자매	4.24			b			3.79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M	F	D	M	F	D	
부의 연령	45세 이하	4.05	.02		3.73	.03		
	46~50세	4.06			3.74			
	51세 이상	4.06			3.74			
모의 연령	45세 이하	4.07	.26		3.74	.94		
	45~50세	4.02			3.76			
	51세 이상	4.07			3.62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85	3.00*		b	2.18		
	중졸	3.96			ab			3.58
	고졸	4.10			a			3.67
	전문대졸 이상	4.16			a			3.76
모의 학력	국졸 이하	3.98	.91		3.61	3.40*	b	
	중졸	4.04			b		3.72	
	고졸	4.11			ab		3.78	
	전문대졸 이상	4.17			a		3.98	
부의 직업	전문·행정직	4.09	2.80*		ab	2.90*	a	
	판매·서비스직	4.12			a		3.85	
	생산·단순노무직	3.91			ab		3.76	
	농·어업	4.21			a		3.61	
	무직	3.76			b		3.61	
모의 직업	전문·행정직	4.13	3.71**		a	.69	a	
	판매·서비스직	4.05			a		3.75	
	생산·단순노무직	3.53			b		3.57	
	농·어업	4.22			a		3.81	
	주부	4.03			a		3.69	
가게 소득	150만원 이하	3.94	6.78***		b	9.21***	b	
	151~250만원	4.14			a		3.61	
	251만원 이상	4.26			a		3.84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p < .05$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을 부모동거가족과 편부모·무부모가족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생활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p < .01$ ) 및 학교생활( $p < .001$ )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출생순위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았다. 상담대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친구·형제·자매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에서 더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가계소득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부의 학력은 가정생활 적응( $p < .05$ )에서 모의 학력은 학교생활 적응(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의

직업에 따른 가정생활 적응은  $p <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보면 판매·서비스직 집단과 농·어업 집단이 무직 집단보다 가정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은  $p < .05$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무직집단이 전체의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가정생활 적응( $p < .01$ )이 생산·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51만원 이상 소득 집단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성별, 가족유형, 종교의 유·무, 상담 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7개 하위 요인 가운데 「독특성」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양임(1994)의 연구결과인 「자기수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봉숙(1984)의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하위요인별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조원영(1990), 홍성애(1988), 김영희(1989), 송희옥(199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연구를 계속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

<표 5> 성별, 가족유형, 종교 유·무, 상담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별	남	3.54	.72	.72	3.23	.60	1.56	4.08	.90	-0.11	3.36	.93	1.95*
	여	3.50	.75		3.16	.62		4.09	.88		3.23	.95	
가족 유형	부모동거가족	3.54	.73	2.32*	3.21	.60	2.42*	4.11	.88	2.41*	3.31	.94	1.60
	편부모·무부	3.33	.74		3.04	.65		3.85	.97		3.13	.95	
	모가족												
종교	유	3.52	.75	.26	3.17	.60	-1.42	4.08	.91	-0.03	3.32	.95	.92
	무	3.51	.73		3.23	.62		4.08	.87		3.26	.93	
상담 여부	한다	3.60	.72	4.52***	3.21	.59	.59	4.18	.84	4.16***	3.38	.95	3.54***
	안 한다	3.34	.74		3.18	.65		3.89	.95		3.12	.92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별	남	3.67	1.25	1.72	3.61	1.21	-0.64	3.67	.86	-1.48	3.43	1.18	.75
	여	3.52	1.25		3.67	1.23		3.46	.85		3.36	1.24	
가족 유형	부모동거가족	3.63	1.26	2.40*	3.66	1.23	1.48	3.42	.86	.65	3.41	1.21	1.22
	편부모·무부	3.27	1.14		3.44	1.18		3.35	.84		3.24	1.21	
	모가족												
종교	유	3.58	1.27	-0.39	3.68	1.20	1.09	3.45	.85	1.19	3.38	1.23	-0.40
	무	3.61	1.23		3.59	1.24		3.37	.86		3.41	1.19	
상담 여부	한다	3.70	1.23	3.48***	3.71	1.24	2.43*	3.55	.81	6.53***	3.47	1.21	2.48**
	안 한다	3.37	1.26		3.48	1.18		3.13	.87		3.24	1.19	

\* p<.05    \*\* p<.01    \*\*\* p<.001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는 「총자아정체감」과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모와의 동거가족이 편부모·무부모가족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순규(1987), 홍성애(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는 어느 요인에서도 자아정체감 형성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김영희(1989), 송희옥(1993), 최양임(1994), 정문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생의 종교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민이 있을 때 상담 여부에 따라서는 하위요인 중 「가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좀처럼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출생순위와 상담대상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김영희(1989)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가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송희옥(1993)의 연구에서는 독자인 청소년들이 형제가 있는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이 더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하고자 했을 때 상담대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면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p<.01)에서는 부모와 상담하는 집단이 친구·선배와 상담을 하는 집단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



<표 6> 출생순위와 상담 대상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F	D	M	F	D	M	F	D	M	F	D	
출생 순위	만 이 중 간 막 내 독 자	3.59	1.88		3.21	.64		4.15	2.33		3.32	2.13		
		3.44			3.16			3.98			3.21			
		3.50			3.21			4.09			3.32			
		3.61			3.29			4.33			3.68			
상담 대상	친구·선배 부모 형제·자매	3.57	1.95		3.18	2.47		4.16	.49		3.33	1.63		
		3.76			3.35			4.26			3.51			
		3.59			3.21			4.21			3.49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F	D	M	F	D	M	F	D	M	F	D	
출생 순위	만 이 중 간 막 내 독 자	3.71	1.33		3.78	1.81		3.49	1.43		3.48	.98		
		3.51			3.56			3.40			3.29			
		3.57			3.56			3.33			3.40			
		3.43			3.64			3.49			3.41			
상담 대상	친구·선배 부모 형제·자매	3.61	5.43**	b	3.68	.99		3.60	3.35*	a	3.46	2.13		
		4.12			a			3.90			ab			3.71
		3.81			ab			3.77			b			3.29

<표 7> 부모의 연령,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연령	45세 이하	3.53	.79		3.18	1.04		4.10	.61		3.29	.03					
	45~50세	3.54			3.24			4.11			3.30						
	51세 이상	3.46			3.17			4.02			3.29						
모의 연령	45세 이하	3.55	1.77		3.21	1.94		4.12	1.00		3.31	.13					
	46~50세	3.48			3.21			4.02			3.27						
	51세 이상	3.39			3.07			4.05			3.30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26	7.57***	b	3.03	5.26***	c	3.64	9.89***	c	3.04	11.79***	c				
	중졸	3.39			b			3.09			bc			3.99	b	3.02	c
	고졸	3.57			a			3.23			ab			4.14	ab	3.34	b
	전문대졸 이상	3.66			a			3.30			a			4.26	a	3.57	a
모의 학력	국졸 이하	3.29	8.14***	c	3.08	4.89**	b	3.76	10.88***	b	3.05	10.41***	c				
	중졸	3.52			b			3.16			ab			4.12	a	3.23	bc
	고졸	3.61			ab			3.26			a			4.22	a	3.45	b
	전문대졸 이상	3.74			a			3.30			a			4.30	a	3.74	a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연령	45세 이하	3.59	1.25		3.65	.74		3.47	1.24		3.43	0.80					
	45~50세	3.67			3.69			3.36			3.42						
	51세 이상	3.49			3.55			3.41			3.30						
모의 연령	45세 이하	3.65	2.42		3.70	1.76		3.43	.88		3.43	1.06					
	46~50세	3.55			3.53			3.41			3.38						
	51세 이상	3.32			3.52			3.29			3.21						
부의 학력	국졸 이하	3.31	3.31*	b	3.42	3.99**	b	3.24	1.84		3.13	3.20*	c				
	중졸	3.43			ab			3.48			3.24			bc			
	고졸	3.69			a			3.65			3.48			ab			
	전문대졸 이상	3.70			a			3.89			3.37			a			
모의 학력	국졸 이하	3.38	2.36		3.33	5.12**	b	3.33	.98		3.12	4.80**	b				
	중졸	3.60			3.69			a			3.47			3.38			
	고졸	3.67			3.75			a			3.39			3.52			
	전문대졸 이상	3.81			3.90			a			3.46			3.70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6·7)

났으며, 「사회성」(p<.05)에서는 친구·선배와 상담하는 집단이 형제·자매와 상담하는 집단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의 연령은 「총자아정체감」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의 학력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은 p<.001 수준에서, 「미래계획」은 p<.01 수준에서, 「자기수용」, 「자율성」은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으로써 집단간 차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사회성」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의 학력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력」,

<표 8> 부모의 직업,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수준

구 분		총자아정체감			가 치			사회적 적응력			독 특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직업	전문·행정직	3.63		a	3.28		a	4.24		a	3.46		a
	판매·서비스직	3.55		ab	3.27		a	4.12		a	3.33		a
	생산·단순노무직	3.43	3.15**	ab	3.07	3.91**	a	4.00	5.46***	a	3.17	4.02**	ab
	농·어업	3.43		ab	3.13		a	3.95		a	3.16		ab
	무직	3.27		b	3.16		a	3.45		b	2.94		b
모의 직업	전문·행정직	3.62			3.27			4.17			3.35		
	판매·서비스직	3.52			3.21			4.12			3.32		
	생산·단순노무직	3.43	.44		3.17	.45		4.04	.47		3.19	.51	
	농·어업	3.50			3.16			4.02			3.21		
	주부	3.52			3.20			4.08			3.33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38		c	3.11		c	3.93		b	3.11		c
	151~250만원	3.59	16.99***	b	3.25	11.08***	b	4.19	11.41***	a	3.40	20.61***	b
	251만원 이상	3.86		a	3.43		a	4.35		a	3.77		a
구 분		자 기 수 용			미 래 계 획			사 회 성			자 율 성		
		M	F	D	M	F	D	M	F	D	M	F	D
부의 직업	전문·행정직	3.67			3.81			3.43			3.54		
	판매·서비스직	3.62			3.64			3.46			3.44		
	생산·단순노무직	3.50	.65		3.56	2.10		3.42	.24		3.32	1.88	
	농·어업	3.67			3.47			3.38			3.22		
	무직	3.45			3.40			3.31			3.19		
모의 직업	전문·행정직	3.76			3.69			3.50			3.57		
	판매·서비스직	3.58			3.65			3.40			3.33		
	생산·단순노무직	3.49	.54		3.31	.54		3.33	.28		3.48	.71	
	농·어업	3.65			3.68			3.43			3.33		
	주부	3.55			3.65			3.41			3.44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3.48		b	3.54		b	3.32		b	3.19		c
	151~250만원	3.61	7.23***	b	3.70	2.96*	ab	3.46	6.07**	b	3.52	13.93***	b
	251만원 이상	4.06		a	3.85		a	3.66		a	3.88		a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독특성」은  $p < .001$  수준에서, 「가치」, 「미래 계획」, 「자율성」은  $p < .01$  수준에서 고졸, 전문 대졸 이상 집단의 청소년들이 국졸, 중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양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인 「사회성」과 「자기수용」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학력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수

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의 직업과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의 직업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적응력」은  $p < .001$ 수준에서 「총자아정체감」, 「가

<표 9>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구 분		가정생활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변 인	집 단	M	F	D	M	F	D
총자아정체감	상 (195)	4.36		a	4.31		a
	중 (378)	4.14	45.62***	b	3.76	167.35***	b
	하 (188)	3.57		c	3.09		c
가치	상 (265)	4.21		a	3.97		a
	중 (336)	4.06	12.43***	a	3.70	26.68***	b
	하 (160)	3.77		b	3.42		c
사회적적응력	상 (194)	4.38		a	4.20		a
	중 (387)	4.12	46.48***	b	3.78	117.96***	b
	하 (180)	3.56		c	3.13		c
독특성	상 (206)	4.19		a	4.04		a
	중 (373)	4.09	7.89***	a	3.77	45.97***	b
	하 (182)	3.84		b	3.32		c
자기수용	상 (203)	4.51		a	4.27		a
	중 (373)	4.05	61.55***	b	3.77	160.15***	b
	하 (185)	3.57		c	3.08		c
미래계획	상 (191)	4.31		a	4.18		a
	중 (397)	4.06	17.86***	b	3.70	63.79***	b
	하 (173)	3.76		c	3.33		c
사회성	상 (219)	4.21		a	4.10		a
	중 (360)	4.12	16.81***	a	3.78	79.79***	b
	하 (182)	3.73		b	3.21		c
자율성	상 (215)	4.23		a	4.23		a
	중 (362)	4.07	11.10***	a	3.68	99.41***	b
	하 (184)	3.81		b	3.26		c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치], 「독특성」은  $p < .01$  수준에서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의 직업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에 따른 자아정체감 차이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포함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251만원 이상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유명환(1989), 박은아(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 4.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들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생활 적응에서의 집단간 차이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 「미래계획」은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가치」, 「독특성」, 「사회성」, 「자율성」에서는 상·중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그리고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출생순위,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동거가족의 청소년이 편부모·무부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대상으로는 부모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친구·선배, 형제·자매들과 상담하는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의 수준 차이에서 보면 종교 유·무, 출생순위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독특성」에서, 가족유형에서는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자기수용」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

차이를 보였다. 상담여부에 따라서는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대상으로는 부모를 선택한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기수용」에서, 친구·선배를 선택한 집단의 청소년들은 「사회성」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에서 부모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의 학력은 가정생활 적응에서, 모의 학력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부모가 고졸 이상 학력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의 직업은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의 직업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은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으면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았다. 부의 직업은 「총자아정체감」을 비롯한 하위요인 중 「가치」, 「사회적 적응력」, 「독특성」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를 보였으나 모의 직업은 자아정체감에 따른 수준차이가 없었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정체감수준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아정체감의 수준차이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편부모·부부모가족,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 그리고 상담을 하지 않는 집단의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고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하여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동일시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들 중에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미애(1991). 농어촌 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1989). 우리 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199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과 의 상관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9). 중·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1988). 학업우수아와 학업부진아의 정서적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녀(1992). 심리적 학교환경과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윤(1989).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 \_\_\_\_\_(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중앙적성출판사.
- 박완성(1990). 고교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1993). 가족구조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82). 가정환경의 지위변인과 작용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희옥(199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계전(1985).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규(1987). 정상과 결손가정의 가정환경의 심리적 과정변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외(1995).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장인기(1983).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광수(1987). 자기 일관성과 생활변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희(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영(1990). 가정환경이 학업성취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양임(1994). 가정환경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에 상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상호작용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argaret,A.L.(1985). Adolescenc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 Erikson,E.H.(1963).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윤진·김인경 역(1988), 중앙적성출판사.
- Erikson,E.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 Co.